

나주시, RE100 에너지 자문위 출범

분야별 전문가 17명으로 구성 에너지 첨단산업 육성 본격화

나주시가 에너지 대전환 시대를 맞아 탄소중립 실현과 'RE100'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약속 캠페인) 중심의 에너지 정책 개발을 위한 자문위원회를 출범하고 에너지 첨단산업 육성에 사동을 걸었다.

나주시는 최근 시청사 이화실에서 '나주시 RE100 에너지 정책 자문위원회' (이하 자문위) 출범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자문위는 에너지·탄소중립, 물리·화학, 관광·기획, 농업 등 분야별 학식과 경륜, 명망이 두루 갖춘 전문가와 대학 교수, 공기업·대기업 임원, 시의원, 공무원 등 총 17명으로 구성됐다.

위원회 명단에는 ▲윤병태 나주시장 ▲문승일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켄텍) 석학교수 ▲최용국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 광주전남지회장 ▲김숙철 한국전력공사 전문위원 ▲문봉진 광주과학기술원 물리·광과학과 교수 ▲신재문 한전KDN 미래사업개발본부장 ▲박효연 전남대학교 문화관광경영학과 교수 ▲김상일 한국전력거래소 전력시장본부장 ▲김연중 농촌경제연구원 명예선임연구위원 ▲주동식 녹색에너지연구원 원장 ▲이순형 1.5도 포럼 공동대표 ▲원영진 삼성전자 인



나주시 'RE100' 중심 에너지 정책 자문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한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있다.

프라기술센터 고문 ▲김유신 전남에너지산업기업협의회장 ▲정순남 한국전지산업협회 부회장 ▲김강정 나주시의원, 나주시 이정국 안전도시건설국장, 김민석 일자리경제과장이 이름을 올렸다.

분야별 최고 전문가로 꾸민 자문위는 전 세계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 RE100 등 정부 에너지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나주시 에너지 정책 전반에 대한 자문 역할을 담당한다.

시는 자문위를 중심으로 RE100 수요·공급기업 유치를 통한 에너지산업 육성, 에너지밸리 활성화 및 주민 체감형 정책 개발, 에너지 국제행사 추진 방안 등을 집중 논의할 계획이다.

자문위는 전체 위원 추천을 통해 위원장에 문승일 교수, 부위원장에 이순형 대표를 선임했으며 반기별 1회 정기회의 및 위원장 소집에 따른 수시회의 개최 등 위원회 운영 계획을 수립했다.

문승일 자문위 위원장은 "국내 기업들의 잇따른 RE100선언과 재생 에너지 시장 경쟁력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에너지수도 나주가 의미 있는 역할을 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라며 "나주가 가진 타 지역과 차별화된 인프라적 여건과 강점을 활용한 RE100수요기업, 공급기업 유치와 정책 개발에 자문위원회가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나주=손영철 기자 ycsn@kwangju.co.kr

장흥군 관광지 새단장, 관광객 인기몰이 나선다

물과학관→수열홍보관 명칭 변경 어린이 눈높이 맞춘 콘텐츠 제공 편백숲 우드랜드 '빛의 정원' 재탄생

장흥군이 지역 관광지를 새단장하고 관광객 몰이에 나선다.

장흥군에 따르면 군은 탐진강변에 위치한 정남진물과학관을 수열홍보관으로 새단장한다.

새로워진 물 과학관에서는 물과 수열에너지라는 다소 난해할 수 있는 분야를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콘텐츠로 풀어낼 방침이다.

물 교육 콘텐츠 제공을 위해 1층 홍보관·체험관실, 터치폴 및 수족관으로 조성할 방침이다.

2층은 물 과학체험관, 4D영상관, 수족관으로 재구성하고, 마지막 3층은 실감체험관(3개관)을 만들 계획이다.

군은 체험학습형 프로그램 운영으로 다른 신재생에너지와 함께 수열에너지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를 높이는 데 노력할 방침이다. 새단장을 마친 물 과학관은 2023년 3월경 선보일 예정이다.

장흥군에서 직접 운영하는 물 과학관은 최근 5년간 관람객 총 6만 6000여명이 다녀간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정남진 편백숲 우드랜드가 단계별 야간경관 개선사업을 추진중이다.



수열홍보관 내부.

장흥군은 코로나19로 관광객 재확보를 위해 '어게인, 정남진 편백숲 우드랜드'를 선언하고 옛 명성 되찾기에 나섰다. 군은 우드랜드 운영 인력을 투입해 초화류와 관목류에 각종 LED바, LED네트 조명을 설치했다.

우드랜드를 빛의 정원으로 재탄생시켜 이용객들 모두가 주간뿐만 아니라 야간에도 편백숲 우드랜드를 즐길 수 있도록 꾸민 것이다.

각 공간에는 스토리텔링을 더해 다시 한 번 우드랜드가 전남의 랜드마크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다

양한 산림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정남진 편백숲 우드랜드는 피톤치드와 음이온을 가장 많이 내뿜는 120ha 편백나무 숲이다. 현재 생태건축체험장, 유아숲, 산림치유 등 다양한 산림 치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장흥군 관계자는 "관광객들이 어머니 품 장흥에서 건강한 체험을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우드랜드 내에 초화류 식재는 물론, 야간경관 개선사업을 차근차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장흥=김용기 기자-중부취재본부장 kykim@

'품생품土 강진향교' 문화재청장상 수상

지역문화재 활용 우수사업 선정

강진군이 강진문화원과 함께 추진한 '품생품土 강진향교'가 2022년 지역문화재 활용 우수사업으로 선정돼 문화재청장상과 상금 100만원을 수상했다.

지역문화재 활용사업은 문화재정이 지역에 잠자고 있던 문화유산의 가치와 의미를 재발견하고 이를 토대로 새로운 문화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해 매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모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강진군은 2022년 지역문화재 활용사업 '향교·서원문화재 분야'에서 시행된 108개의 사업 중 7가지 지표별 세부기준에 따른 현장점검과 전문가 평가를 거쳐 최종 6개 우수사업에 선정됐다.

'품생품土 강진향교' 프로그램은 유치원생부터 초·중·고등학생, 성인까지 전 계층을 아우르는 콘텐츠로 큰 인기를 끌었다. 2022년 11월 말 기준 9400여 명의 누적 이용객을 기록했다.

'품생품土'의 '품'은 플랫폼(platform)을 의미한다. 문화와 교육, 체험이 공존하며, 자유롭게 교류

하는 소통의 정거장 역할을 하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특히 '다산인(人in) 강진향교', '다 같이(多 가치) 강진향교', '삼시세끼 힐링향교' 등 지역의 역사성과 스토리 중심의 우수한 체험 교보재를 개발해 자생력을 갖춘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지역문화재 활용사업의 모범사례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또 대상별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제공해 지역 주민과 관광객들에게 문화유산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강진향교를 사람과 이야기로 가득한 생기 넘치는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밖에도 지역의 예인에 대해 조명하는 '향교에서 만난 함동정월', 문화재 이용 방법과 생활 속 전통 예절을 배우는 '흥미진진 인의예지', 고유의 전통 놀이를 알리기 위한 '놀이! 놀자! 놀이가 밥이다',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문화유산 지킴이 활동 등으로 소통하는 강진향교로 다시 서고자 하는 다각도의 노력이 엿보였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kwangju.co.kr

나주시, 경로당 입식테이블·의자 보급 호응

620곳 대상...올해 115곳 완료

"하루종일 방바닥에 쪼그리고 앉아 있으면 허리도 쭈시고 무릎도 아팠는데 의자에 앉아 있으니 겁나 편하네."

나주시가 어르신들의 주 생활공간인 경로당과 마을회관에 입식테이블과 의자 보급을 시작하면서 호응을 얻고 있다.

나주시는 전체 경로당, 마을회관 등 총 620개소를 대상으로 입식 테이블과 의자 보급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경로당 입식 테이블·의자 보급은 윤병태 시장이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관절 건강과 식사·여가 생활 편의를 위해 발굴한 민선 8기 공약사업이다.

사업비 9억2900만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은 올해부터 2025년까지 연도별로 추진된다.

올해는 1억5000만원을 투입, 지난달까지 경로당 115개소에 입식 테이블·의자를 보급했다. 2023년과 2024년에 각각 200개소, 사업 마지막 해인 2025년 나머지 전체 경로당 보급을 완료할 방침이다.

시는 경로당별 면적과 어르신들의 신체 여건 등을 고려해 4인용 입식 테이블과 고정형 의자를 이



나주 지역 어르신들이 경로당 입식테이블에서 간식을 드시고 있다. (나주시 제공)

용자 수(평균 14~16인)에 맞춰 보급하고 있다.

성인 한 명이 거뜬히 들고 옮길 수 있는 가볍고 튼튼한 나무합판 소재 접이형 테이블을 선정해 이용편의와 공간 효율성을 극대화했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좌식문화로 오랜 기간 불편을 겪었던 어르신들의 관절건강과 편안한 여가생활을 위해 전체 경로당, 마을회관에 입식 테이블과 의자를 보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담양군, 농림축산식품부 조사료 가공시설 지원사업 선정

담양군이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인 2023년 조사료 가공시설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9억원을 확보했다.

조사료 가공시설 지원사업은 국내산 조사료의 이용 증진과 공급 활성화를 통한 조사료 자급 기반 확대와 지속가능한 축산업 발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조사료 생산·공급능력 등 타당성을 종합평가하여 선정됐다.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담양축협은 오는 2023년

도에 사업비 30억원(국비9억, 지방비9억, 자부담12억)을 투입해 TMR 사료 생산에 필요한 기반 시설을 2023년 하반기에 준공할 계획이다.

시설이 완료되면 일 65 t, 연간 24만 t의 TMR(Total Mixed Ration)사료를 축산농가에게 생산원가로 공급할 수 있다.

공급이 확대되면 높은 등급으로 고급육 생산을 통한 농가 소득증대는 물론 경영비 절감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담양=한동훈 기자 hdh@

건강한 생활을 위한 스마트 에어가전이 한 곳에!

DK 디케이 주식회사
www.e-dk.co.kr

벽걸이공기청정기 (36평)
DAP-2299****

mini air(DAP-0403**)**
공기청정기 + 블루투스 스피커

0420 공기청정기 (13평)
DAP-0420ANWG

S9 공기청정기 (16평)
DAP-2216NAWH

소비자만족센터(구입 및 A/S)
1544-1154